

전국단위 첫 대체식품 특화 협업모델 만든다

전북도,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 SF 네트워킹 데이 개최

전북도가 대체식품 기업과 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고 K-푸드테크가 글로벌을 선도할 수 있는 교두보 마련을 위해 지난 1일 판교에서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 SF(Sustainable Foods 대체식품) 네트워킹데이'를 개최했다.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이하 얼라이언스)는 산·학·연·관 간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을 위해 지난 9월 출범한 협의체로, 지속가능한 푸드를 목표로 한 'SF그룹'과 스마트제조(DX(디지털전환) 그룹) 두 개의 특화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얼라이언스 회원사인 롯데중앙연구소, 대성연구소 등 대기업 식품 연구소와 코달로, 팜조아, 광세 등 대체식품 기업, 그리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전주대학교 등 지원·교육기관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식량안보의 시각에서 대체식품 산업을 육성중인 UAE의 아부다비투자진흥청과 KEZAD에서 참여해 얼라이언스에 관심을 드러냈고 전북창조경

제혁신센터 주관 2023 해외스타트업 유치지원사업에 선정된 독일 기반 대체수산물기업 코달로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대기업·중소기업·기관 간 연계 강화를 위해 △롯데중앙연구소, 대성연구소에서 상생협업 사례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및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실증체계와 규제샌드박스, 푸드테크 지원 사례를 소개하고, △참여기업의 대체식품 개발분야와 협업에 필요한 규제 개선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얼라이언스를 주관한 백승하 전라북도 농생명식품과장은 "대한민국 푸드

테크에서 대체식품에 대한 논의의 중심인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에 더 많은 기업의 가입을 환영한다."라면서,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대체식품 신산업에 대한 기준 및 인증체계와 규제샌드박스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얼라이언스의 대체식품 특화 정책을 위해 푸드테크 전담사무국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 지정할 예정(2024년 1월경)이며, 규제완화, LCA(전과정평가) 체계구축 등 푸드테크 실증체계를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가 '2023년 아동정책포럼'에서 보건복지부 주관 지자체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광역자치단체 1위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도,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최우수상'

지난해 우수상 이어 2년 연속 수상

전북도가 '2023년 아동정책포럼'에서 보건복지부 주관 지자체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광역자치단체 1위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의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에 의거, 아동정책 계획수립의 적절성, 이해의 충실성, 성과달성도를 평가한 것으로, 아동정책사업을 성실히 수행한 공을 인정받아 작년 '우수상'에 이어 올해 '최우수상'을 수상해 2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평가는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편람에 기반한 정량·정성 평가와 관련된 분야 전문가 심사로 결정, 도는 지표 전반에서 고르게 높은 평

가를 받았으며, 특히 공적 아동보호체계 구축, 가정위탁 활성화 등 '성과 달성도'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북도는 '아동이 행복한 전라북도' 비전으로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동 존중 및 권리 증진·실현 △아동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지역 환경조성, 두 가지 정책목표로 총 217개 과제를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승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의료장은 "앞으로도 아동존중과 아동중심의 정책을 기획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모든 아동이 행복한 전라북도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힘내라 소비자!" ... 제26회 전북소비자대회 열려

소비자 권익증진 유공자 26명 표창 도청 1층 '소비자정보전시회' 병행

전북도가 주최하고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지회장 유유순)가 주관하는 '제26회 전북소비자대회'가 지난 1일 전북여성가족재단 대강당에서 열렸다.

전북소비자대회는 올해로 26번째로 소비자의 날(12월 3일)을 기념해 도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행사이다.

이날 행사에서 올 한 해 소비자 권익증진 활동에 공로가 큰 유공자 26명에 대한 표창 수여와 농촌지역 중·고등학교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한 나중수 원광대 명예교수가 '문화의 시대, 소비자란' 주제로 유익한 특강을 했고, '소비자골든벨을 울려라' 퀴즈대회 및 소비자단체 회원간의 단합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청 1층 로비에서 '슬기로운 소비자생활, 찾아가는 소비자정보전시회'를 이달 8일까지 운영한다.

그간 전북도는 체계적이고 안정된 등 소비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전문활동가를 양성하여 고령자 및 어린이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으로 인형극을 통한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대상 경제교육, 다문화



'제26회 전북소비자대회'가 지난 1일 전북여성가족재단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김중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서거석 교육감,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비자생활불가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이주여성, 주부 등 매년 8천여명을 대상으로 현장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통신판매(인터넷소싱몰)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도내 통신판매업자 2만2,376곳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및 온라인쇼핑몰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 등 소비자의 안전한 권리,

알권리 등 8대 권리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 추진을 해왔다.

이외에도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교육중앙회전북지부 등 지역내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 광주호남지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역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김중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신기

술들이 각종 혜택을 누리게 해주는 동시에 소비자문제를 야기시키는 등 소비생활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정보에 취약한 소비자가 현명하고 책임 있는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등 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군산비응항 흰색 등대에 안전과 평화 기원 트리 설치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일몰로 유명한 비응항의 방파제 끝에 있는 흰색 등대에 트리를 설치해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등대 트리는 연말연시를 맞아 안전과 풍어,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특히, 비응항뿐만 아니라 새만금방조

제를 지나는 차량에서도 볼 수 있어 서해의 아름다운 일몰과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시스

높이 13m, 지름 3m 크기의 반짝이는 LED 조명이 등대의 기초와 난간에는 예쁜 노란색 피를 두르고, 다가오는 2024년 용의 해 갑진년을 상징하는 청룡과 별 등 다양한 조형물이 함께 조화를 이뤘다. /뉴시스

기상악화로 토마토 가격 '굉충'

정부 "비정형과 출하 확대" ... 장수서 출하 동향 등 점검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지난 1일 "크기가 일정하지 않거나 모양이 예쁘지 않은 토마토도 섭취하는 데 문제가 없는 만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정형과 유통을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박수진 실장은 이날 전북 장수군을 방문해 토마토 출하 동향과 작황을 점검하고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도록 생육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했다.

토마토는 시설에서 연중 재배되는 채소로 여름철에는 강원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며 12월에는 장수 등 호남권에서 많이 출하하고 1월에는 부산 등 영남권으로 주 출하지가 이동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날 30일 기준 토마토 상품 1kg

가격은 평균 6518원으로 전년 5454원보다 19.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진 실장은 "겨울철 시설작물 재배에는 온도와 습도 조절이 중요하다"며 "저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작물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0~11월 농협에서 토마토 비정형과 판매 및 시설 채소할인 판매를 추진한 바 있다. 앞으로 작황 관리 기술지도, 비정형과 출하 확대 등 안정적 공급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뉴시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